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주현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월 넷째 주는 예배와 성도간의 교제 이후 목장모임이 있고, 목장끼리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4.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예배와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9일 : 정지원 / 30일 : Claire Yue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양하나 / 설교번역: 위충일
- 2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목자모임 : 2월 1일 예배 후
- 사순절 시작: 2월 18일 재의 수요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4주)

사 9:1-4, 시 27:1, 4-9, 고전 1:10-18, 마 4:12-23

교회세운날 2017.6.11

26-04

1월 25일 (주현절 후 셋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 말씀 나눔 *

1.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시험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직장을 포함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겪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3.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품(포이에마)로 만드시기 위해 시험(temptation)과 시련(trial, testing)을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지, 그리고 그 부분에 인내가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봅시다.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출 20:8-11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기도		박성조
주일학교 이동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	야고보서 1장 2-4절	인도자
설교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축도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너만의 이유를 찾아

날이 무척 춥습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입니다. 눈도 조금씩 자주 와서 눈치우느라 애들 많이 쓰셨죠? 냉동고 온도보다 더 낮은 바깥 기온에 움츠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은 이른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봄이 저 먼 발치부터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1월도 이제 다 갔잖아요? 2월 그리고 3월만 잘 버티면 아무리 힘센 겨울도 봄의 기운 앞에선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깐 있다 물러갈 이 추위와 겨울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지난 번 쉬면서 본적 있습니다. 백강혁이라는 외상외과 의사가 대형 병원 중증외상센터의 외상외과 교수로 초빙되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백강혁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대단히 독특해서 매력이 넘쳤습니다. 조직이나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큰 가치에 헌신하여 물불을 안 가리는 의사로 그려지는데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한국에 외과에 지원 하는 의사가 드물다면서요? 외과가 그러니 외상외과는 오죽하겠습니까? 병원에 오자마자 백강혁은 펠로우를 모색합니다. 향문외과 펠로우가 되려고 하는 말랑 말랑해 보이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양재원이라는 신참이 그의 레이다망에 포착됩니다. 결국 여차 저차 해서 양재원은 백강혁의 꼬심(?)에 넘어가고 향문외과를 포기하고, 험난한 중증외상팀의 멤버로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고 양재원은 버거워합니다. 중증외상팀의 유일한 간호사인 천장미 간호사도 백강혁과 함께 어떻게든 양재원을 붙들어 보려 노력합니다. 힘들어 하는 양재원에게 천장미가 말합니다. “우리 인정 받으려고 이런 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상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인거고,,, 우리 잘 버텨봐요.” 뭔가 땀겨울 바라지 않고 생명 살리는 그 가치에 투신한 간호사의 묵직한 조언 앞에 양재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양재원은 지쳐갑니다. 이번엔 백강혁 나섭니다. “너만의 이유를 찾아.” 외상외과의 험난한 길을 가는 자기만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개같이 구르고 옛같이 깨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딱딱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대다.”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백강혁은 고등학교 시절 사고를 당한 아버지가 이병원 저병원 응급실에서 받아 주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지만 마지막 찾은 병원 외상 외과 의사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외상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르고 깨쳐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였죠. 우리 삶에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거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포기 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인정받거나 보상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면서까지 주님 따르는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주부터 시작된 야고보서 설교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깨지고 구르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 말입니다.